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9월 뉴스레터 vol. 79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육개장 대신 햄버거를!

징례후기 아주 특별했던 외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이별식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외할머니의 크림빵

채비학교 작은모임 '마음 여행 사진첩' 을 마치고

육개장 대신 햄버거를!



최근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2016년 110그램에서 2020년 236그램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장례식장은 어떤가. 장례식장 한 곳에서 연간 72만 개, 전국 2억 1천60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홍성의료원, 아산의료원, 서산의료원, 태안상례원, 군산의료원 등이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 거창군도 다회용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상급병원 최초로 강남삼성병원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장례식은 보통 3일 동안 치르는데, 이때 상주나 유족은 장례식장에 상주하면서 문상객을 맞이한다. 조문을 끝낸 문상객은 대개 식사를 하거나 음료 등을 제공받는데, 이때 일회용기에 담긴 음식이 나온다.

일회용기 한 박스에는 200인분이나 300인분의 밥, 국, 접시 대중소, 수저(플라스틱), 종이컵, 상보(비닐) 등 다양한 재질의 용기가 담겨 있다. 200인분 1박스의 가격은 10만 원 정도다. 이 일회용품은 장례식장에서 구매하거나 상주나 유족이 속한 회사에서 무상제공한다. 장례가 끝나면 음식이나 음료를 담았던 일회용기는 전량 폐기된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도 다량 발생한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설거지 트럭을 개발하려고도 했고, 유족의 요청으로 남대문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구입해 장례식장에서 설거지를 한 적도 있다.

유○○ 전 장관 모친상에서는 상주의 요청으로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다과를 제공한 적도 있다. 장례식장은 싫다며 집에서 장례를 치른 사례도 여럿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충무로에 ‘공간채비’를 마련하고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는 ‘작은장례’를 실천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편리하기 때문이다. 장례에서는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원이 몰린다. 그렇다 보니 일회용품이 필수적이다. 또 일회용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거나 마케팅을 하는 의전업체도 있다. 일회용품은 다회용기에 비해 가격이 2~3배 저렴하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다.

다회용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면 정부의 의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회용기가 ‘자원재활용법’의 규제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다회용기를 제공하려는 장례식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상조업체의 비협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접객 관리사들은 일회용품보다 무겁고 다루기 힘든 다회용기를 기피한다.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장례 현장에서 다량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나가야 한다. 음식물을 담지 않는다면 일회용 쓰레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술 대신 건강차를 마신다면, 커피와 쿠키를 먹는다면 어떨까. 기후변화의 시대에 장례식장을 친환경의 대명사로 만들자.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환영한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아주 특별했던 외할머니와의 아름다운 이별식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살아온 외할머니. 결혼하고 집을 나와서부터는 가까이 있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2년 넘게 거동이 불편해진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의지하는 만큼, 엄마 또한 점점 아이 같아지는 할머니를 돌보며 마음이 복잡해지시는 것 같았다. 할머니의 삶이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엄마에게도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삶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례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엄마는 할머니의 얼굴을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채우고, 그런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정신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허례허식이 아닌 정말 할머니를 추모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례식을 원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다 보니 기존 장례방식에 문제를 느끼는 협동조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장례 협동조합을 찾아보게 되었고, '채비장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조합원이 되었다.

'채비장례'는 장례식장을 빌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 중심으로 손님을 치르는 방식의 장례가 아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데 중심을 두는 장례문화를 제안한다.

엄마에게 '채비장례'를 소개하고 함께 플래너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 엄마도 의식은 간소하게 하고 추모는 깊이 있게 하는 채비의 장례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했다.

엄마가 할머니를 모신 시간이 길긴 하지만 외삼촌들의 의견도 중요하기에 명절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행히 외삼촌들도 엄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할머니 물건도 차츰 정리해나가고 사진도 찾아서 스캔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장례가 아니었기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모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 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추모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채비 플래너님과 두세 차례 더 상담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할머니의 임종을 맞게 되었다.

채비에서는 일반 장례식장을 빌리거나 무빈소로 진행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엄마의 뜻대로 할머니를 애도할 수 있는 작은 장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추모 일정은 1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한 시간 전부터 동생과 함께 챙겨온 사진과 유품들을 전시했다.

병원갈 때 입으셨던 화사한 가디건, 생전에 아껴 입으셨던 고운 한복도 다림질해서 걸어놓고, 추위를 많이 타시던 할머니를 위해 엄마가 직접 떠 드렸던 니트도 걸었다.

조문객들을 맞기 전 플래너님께서 가족들에게 채비에 대해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 모두 조금은 낯설어 했지만 채비의 장례 방식에 고개를 끄덕였다.

추모 일정이 진행되는 공간채비 안쪽에는 유족들이 쉴 수 있도록 분리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에 죽음과 이별에 관한 그림책이 있어 조문객을 기다리는 등한 함께 읽었다. 채비에서는 추모와 애도에 관한 교육과 모임도 진행한다고 한다.

플래너님께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리면 추모공간에서 음악과 함께 상영해 주신다. 추모식을 진행할 경우 영상 제작을 해주시기도 한다.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동안 가족들과 추모객이 모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고인이 즐겨 들던 노래나 음악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함께 듣거나 노래 부르기도 한다. 피아노도 있어서 원할 경우 직접 연주도 가능하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할머니의 고희연 영상도 잠시 상영했다.

입구에는 방명록과 부조함, 조문보와 메모리얼 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조문보에는 고인을 모르는 조문객을 위해 간략하게 생애사를 정리했다. 글은 할머니를 인터뷰 한 적 있는 아빠에게 맡겼다.

조문보는 유족들이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작성하기도 한다. 채비에 글과 사진을 보내드리면 만들어주시기도 하는데, 글이 좀 길어서 디자인은 직접 하고 인쇄 만 30부 정도 부탁드렸다.

조문보 이미지는 온라인 부고장에도 첨부해서 넣었다.

추모객들은 공간채비에 들어와서 우선 고인에게 헌화한다. 절을 하고 싶으면 절을 하기도 한다.

절한 후에는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족의 안내에 따라 사진과 유품을 둘러본다. 모아놓은 사진과 유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인과의 추억을 나눈다. 그동안 몰랐던 할머니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기도 한다.

유품 중에서 손수건은 할머니를 기억하는 가족들과 추모객들이 나누어 가져갔다.

채비추모장례의 큰 장점은 제공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준비를 해도 되고 샌드위치 등 다과를 채비에 맡길 수도 있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식사비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는다.

전부 직접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것 같아서 채비에 기본 50인분의 샌드위치와 컵과일, 떡, 커피와 병음료를 부탁드렸다. 샌드위치는 비건 옵션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10개는 비건으로 주문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크림빵과 양갱 같은 간식을 추가로 준비했다.

조문객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샌드위치를 추가로 주문하기는 어렵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샌드위치보다는 떡을 좋아하셨고 음료와 다과 위주로 자유롭게 가져다 드셔서 부족하지 않았다. 인근에 배달로 주문 할 수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라고 안내해 주셨고 실제로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걱정 했던 것보다 조문객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지 않았고 술을 준비하지 않았던 때문인지 조문객들의 순환도 빨라서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어느 장례식에 가든 마음이 쓰였던 지점이 한가득 나오는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였는데, 샌드위치를 종이박스과 종이 포장지로 준비해 주셔서 좋았다. 우리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제로 웨이스트 장례도 가능할 것 같다.

가족들, 조문객, 어른과 아이들 모두 고인과 유족에게 메모리얼 포스트를 썼다. 아이들은 특히 카드를 나무에 거는 것을 좋아라 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걸려 있는 나무를 바라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시길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다.

추모 일정은 가족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마무리 했다.

모아진 메모리얼 카드는 사진을 찍어 남기고, 입관 때 할머니 품에 엄마가 직접 넣어드렸다. 입관하기 전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미안하고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이야기해주라던 장례 지도사님의 말이 떠오른다.

채비추모장례를 통해 할머니와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관계들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기를 바란다. 채비를 알게 된 덕분에 할머니의 장례가 서투른 표현이더라도 추모와 애도로 채워질 수 있었다.

삭막하고 형식적인 장례가 아닌 아름다운 장례문화를 시도하는 채비를 응원한다.

삶과 죽음은 떨어질 수 없는 짝꿍이기에 살아있는 모두가 진정으로 위로하고 애도하는 아름다운 이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강효민 조합원

외할머니의 크림빵



크림빵이 한 바구니 놓였다.

40~60대라면 다 알고 좋아하는 '삼O 크림빵'이다. 채비 조합원 강OO님의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즐겨 드시던 빵이라고 했다. 너무 반가웠다. 나도 좋아하니까. 판에 박힌 육개장 대신 고인이 생전에 즐겨드시던 음식을 장례식장에서 먹는 일은 흔치않다. 이 빵을 먹으면서 고인의 생애사와 유품들을 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외할머니는 단것을 좋아하셨다고 한다. 단팥과 크림이 같이 있어 더 달콤한 주종발효 빵, 강화도에서 가져온 인절미 젤리, 호박 맛 팔 맛 영양갱... 그보다 값나가고 입맛 당기는 음식도 있었지만 모두 크림빵, 인절미 젤리, 양갱을 부지런히 먹었다. 우리는 단지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떠나실 때 그 손맛도 잃어버리게 된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보약처럼 먹던 어머니의 밥. 별것 없는 일상의 밥을 먹고 또 걸어왔던 인생길.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지치는 날에 어디를 가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지 몰라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020년도에 채비장례가 막 시작했을 때 어떤 유족은 친정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갈비찜을 만들어 먹고 싶어 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먹던 갈비를 씹으며, 양념이 배어 아릿한 냄새를 풍기던 어머니의 손 냄새와 맛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을 것 같았다.

채비 추모식 장례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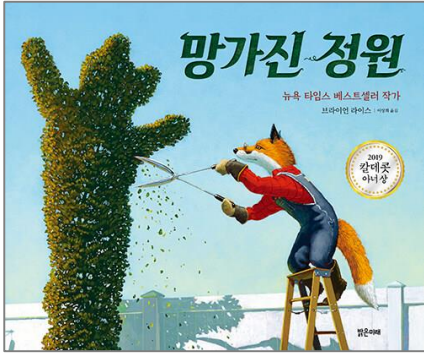
고인을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음식을 나누고 싶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악 플레이리스트로 추모현장 라디오를 진행하며 추억도 나누고, 유족을 일찍 모셔서 임종 과정에 쌓였던 피곤과 슬픔을 잠시나마 쉬게 하는 힐링명상도 하고, 조문 중에 그림책을 읽으며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조금이나마 쉽게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고 싶다.

채비 추모장례는 모든 애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무엇이랄도. ✨

채비플래너 전승욱



다시 사랑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해



망가진 정원

브라이언 라이스 | 밝은미래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상실을 경험한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헤어지기도 한다. 꿈이 깨이기도 하고, 가진 것을 몽땅 잃어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종종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

멍멍이를 잃은 에번은 성을 내며 정원을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멍멍이와 함께 돌봐 온 모든 것을 자르고, 베고, 내던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자 정원은 이내 온갖 잡초들로 무성해진다. 그러다가 발견한 호박 덩굴 하나! 에번은 덩굴을 자를까 잠시 고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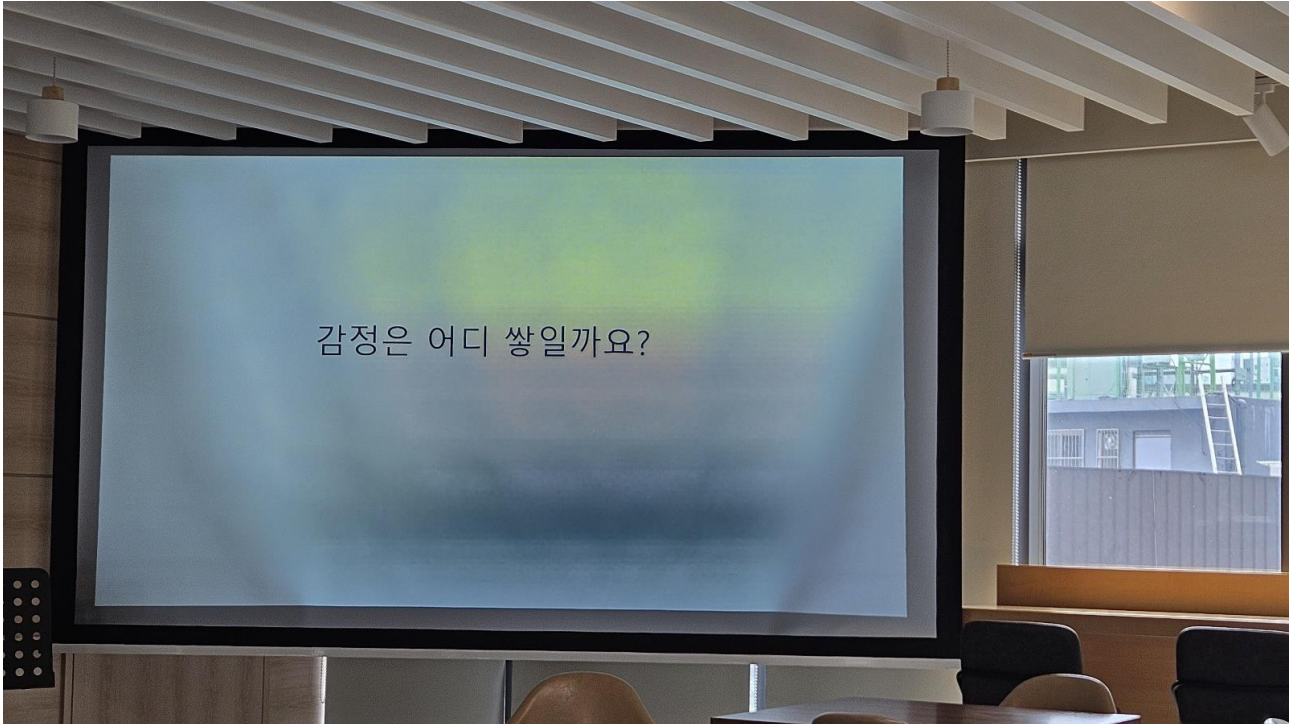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이 자란다. 만지면 가렵고 냄새가 고약한 잡초들 사이에서도 보송보송한 솜털 잎을 지닌 연약한 호박 덩굴이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가장 어두운 에번의 시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은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잘라 버릴지, 아니면 앞을 가로막는 잡초를 베고 물을 줄지를 선택하는 것뿐이다.

상처가 가득하거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 다시 회복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 사랑할 때보다 다시 사랑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용기가 아주 대단한 건 아니다. 필요한 건 호박 덩굴을 돌보는 아주아주 작은 용기쯤! 슬픔에 빠져 홀로 고립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과거를 벗어던질 아주아주 작은 용기내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망가진 정원》은 함께 살던 멍멍이를 잃은 여우 에번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에번의 감정이 그대로 투영된 정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상실감’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더불어 시간이 흘러 정원에 자라나는 호박 덩굴을 통해 에번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는다.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는 눈부신 그림책이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후기] 작은모임 ‘마음 여행 사진첩’ 을 마치고



6월 20일 ~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3회) 지난 작은모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음 여행 사진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각 차수 별 주제는 ‘몸과 감정의 이해’, ‘관찰·자각·새로운 발견’, ‘깊이 듣고 욕구와 감정 표현하기’였습니다.

애도 작업을 깊이 하기 위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모님 (혹은 가족, 지인)의 사진을 모으고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 안의 감정을 만나보았습니다. 간직하고 싶은 좋은 감정은 더 깊이 느껴보고, 피하고 싶은 감정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모호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에 귀 기울였습니다.

내 감정이 하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듣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일어나는 변화도 느껴보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몸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진첩을 만들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길 권해드립니다.

2024년 8월

최수혁 조합원 부친상
안진희 조합원 부친상
이정은 조합원 조모상
김영근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김희진 조합원 모친상
박재완 조합원 모친상

하은지 조합원 모친상
서미현 조합원 모친상
이진영 조합원 부친상
조전홍 조합원 부친상
한성민 조합원 모친상
오규열 조합원 빙부상
강민수 조합원 부친상

박재영 조합원 부친상
인태영 조합원 모친상
이오철 조합원 빙모상
강효민 조합원 조모상
김중구 조합원 장모상
이철손 조합원 본인상

2024년 7월

박철우 조합원 빙부상
최현임 조합원 시부상
홍윤기 조합원 부친상
백운성 조합원 모친상
김동환 조합원 부친상
장이정수 조합원 본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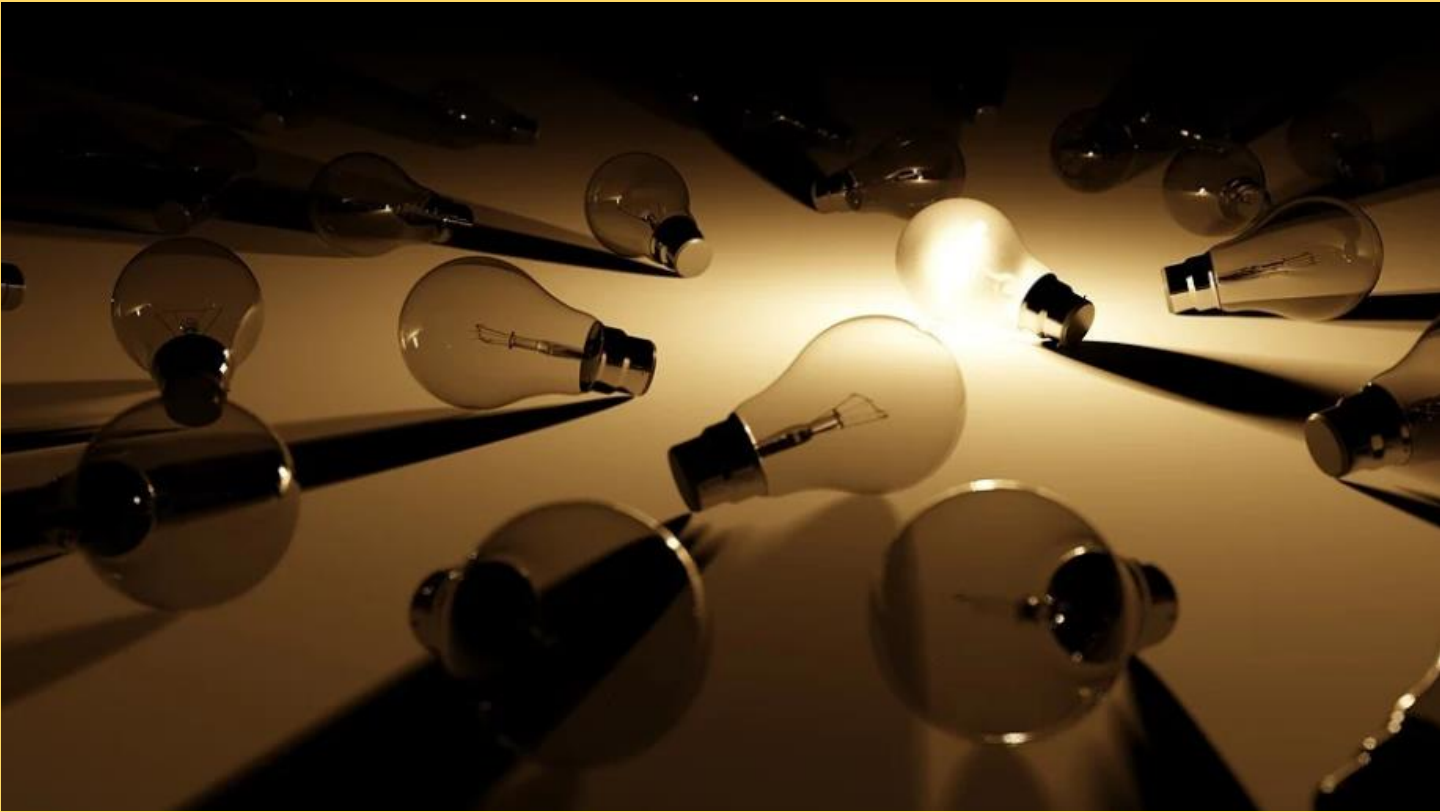
변경미 조합원 모친상
이병학 조합원 백부상
권혁수 조합원 부친상
이현정 조합원 부친상
장진숙 조합원 모친상
최소영 조합원 부친상

김영희 조합원 모친상
이재익 조합원 빙모상
설윤정 조합원 부친상
정영순 조합원 모친상
송광섭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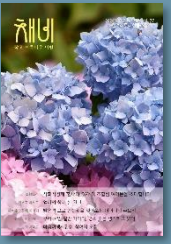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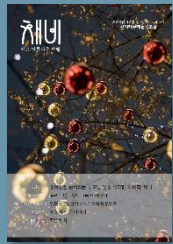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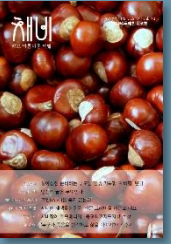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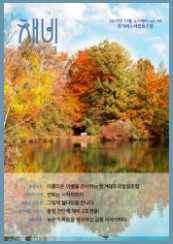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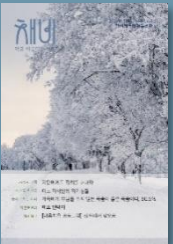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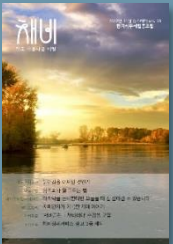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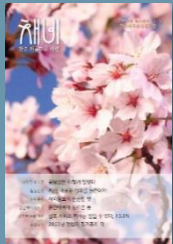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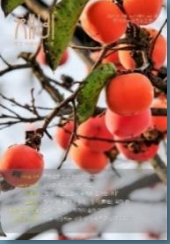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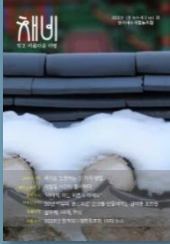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